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sup>1)</sup>

서울사대부설여중 교육실습부<sup>2)</sup>

### <요약>

이 연구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범대학의 존재이유는 교원을 양성하고 길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범대학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설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은 크게 예비교사의 양성과 현직교사의 재교육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예비교사 양성 방법으로는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간의 협력체제 구축, 공립학교 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사범대학생과 부설학교 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활용, 교과 및 담임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습프로그램의 강화, 교육실습 이후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활용 등으로 살펴보았다. 현직교사 재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2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학교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변화하는 세계흐름에 따른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간의 협력이 훌륭한 교사 양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의 마련, 교육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연결, 수업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학교현장에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사범대학, 부설학교, 예비교사, 교사연수, 교사의 전문성

---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1. 11.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교육실습부 (배희숙, bhs111@chol.com)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총체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전제로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 소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사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범대학이다. 사범대학은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를 검토하고 부단히 보다 나은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각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김채문(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 신장은 소홀히 한 채, 교사 양성 정책의 비일관성과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부적합성, 운영의 비효율성 등은 아직도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다.

예비교사 양성은 우리의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예비교사 교육은 사범대학의 존재 이유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1991년부터 교원임용고사에 의해 교사 임용이 이루어진 이후로 사범대학의 존재 이유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범대학 무용론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강도를 달리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몇 개 대학은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오로지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 교원양성을 대체하는 대학도 상당수가 있다. 이들 대학이 교원임용에 있어서 사범대학에 비해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범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교원 양성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본다는 사실 자체가 사범대학 무용론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범대학에는 부설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사범대학의 '훌륭한 인격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예비교사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설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가 공동의 목표, 즉 훌륭한 교사 양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는 못하다. 교육개발원(2011)의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범대학이 있는 전국 45개 대학 중 A등급을 받은 학교는 8개 대학에 지나지 않는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에서 낮은 항목을 받은 대부분의 사범대학이 B등급 이하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범대학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와의 협력이 훌륭한 교사 양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논하고 구

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교사를 길러내고 양성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범대학이 현직교사에 대한 꾸준한 재교육도 담당해야 하고,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직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등의 보다 발전적인 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교사 양성과 교사연수는 모두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은 예비교사양성과 교사연수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두 영역에서 사범대학의 영향력이 검증될 때 사범대학의 존재이유와 사범대학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양성과 교사연수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 본다.

둘째,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과 급변하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을 탐색해 본다.

## 1.2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와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2.1 문헌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초 문헌을 조사, 수집, 분석하였다. 주로 교사 양성 체제, 바람직한 교사상, 사범대학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료가 중심이다.

### 1.2.2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위해서는 전국 각 사범대학 교수 및 부설학교 교원 및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밀도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1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 중학교 교육실습생 115명과 교사 30명의 설문 응

답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논의의 활성화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다양한 집단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 2.1 사범대학의 현황

#### 2.1.1 한국 사범대학의 역사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시작은 19세기 말 갑오교육개혁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실습을 위한 부설학교는 사범학교의 출발과 동시에 설립되었다. 이때까지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설립되지 않았다.

해방 후 미군정 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10월 1일부터 본과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교 수준의 사범대학에서 중등교사 양성을 담당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중등교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처음으로 취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 1945년 12월에 새로운 학제상의 교육기관중 하나로 사범대학 제도를 명시하였고 이 건의를 학무국이 받아들여 1946년 3월 7일 사범대학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중등교사를 사범대학 제도를 통하여 양성교육한다는 정책이 미군정 초기에 확정되었다. 1949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에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시되었다. 다만 중학교 교사양성을 2년제 사범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사양성을 4년제 사범대학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2년제와 4년제의 이원화된 사범대학 체제로 운영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2년제 사범대학이 사라지고 4년제로 단일화되어 중고등학교 교사의 구별 없이 함께 양성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개방적인 교사양성이 도입되었고, 1990년부터는 국공립 교사양성기관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 및 장학제도의 특혜, 복무의무 부과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교원임용교사제도의 도입으로 국립사범대의 위상과 그 법적인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 사범대에서는 사범대학의 교육이념과 기능, 사범대학의 현안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박상완, 2000).

## 2.1.2 사범대학의 교사교육 방법

### 1) 교육과정

초기 사범대학은 전공, 일반교양,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는 일반 대학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교직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중등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전공과목은 교과 내용학이 대부분이었고, 교직과목으로는 교육학의 기초학문과 교육실습 등이 제공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범대학은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학보다는 교과 교육학을 내세운 교육과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별 또는 강사의 역량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각 학교의 교수·학습 계획을 조금만 분석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짜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교육 수준의 질적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 2) 사범대학의 역사

사범대학의 역사는 교원양성기관 변경의 역사이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대체한다<sup>3)</sup>.

1945년 해방 직후 초·중등학교는 초등교원의 40% 이상과 중등교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이 물러남으로써 부족한 교사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한에 있었던 10개의 사범학교 가운데 3개교는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 승격 개편되었고, 나머지 7개교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 존속하였다.

1946년과 1947년에는 계속되는 지역적 초등교사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충청 이남의 모든 도에 사범학교가 추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교사부족 현상은 정규 사범학교 졸업생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심각한 형편이었으므로 강습과, 임시초등교원양성과를 부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도에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46년에만도 임시 초등교원양성소는 24개나 되었으며 양성기간도 2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였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병합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설립되면서 정규적인 중등교사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같은 해에 대구사범학교가 대구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 ; 국정분야별검색 > 교육 > 교원 > 교원양성정책

정부 수립 후 피난과 환도를 거쳐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교사양성 제도는 미군정 때 만들어 놓은 근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체제와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 틀을 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48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교육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초등교사 양성체제가 다소 정비되어 가면서 중등교사 양성체제가 구체적인 제도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경우 3년제 중학교 졸업자를 3년간 교육하는 사범학교가 본격적인 교사양성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 교원양성이나 연수와 등과 같은 비정규 교사양성기관은 차츰 전면 폐지되었다.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4년제의 서울대학교와 대구사범대학에서 개편된 경북대학교의 사범대학 그리고 2년제의 공주사범대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비정규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임시중등교원양성소가 미군정 말기의 형태를 이어 1950년대 말까지 정규양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아울러 비정규 교사양성체제로서 교직과정이 등장하였다. 이는 일반대학에서 전공 외에 일정한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정규교사 보충책으로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립 사범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립되었고, 1954년에는 수도여자사범대학이 2년제로 설립되었으며, 1956년에는 서울문리사범대학이 2년제로 발족되었다.

1960년대 교사양성제도는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되는 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비정규 교사양성기관이 부활되기도 하였다. 1962년 「국립학교설치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전국에는 9개의 교육대학이 설립되었고, 증원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을 전후하여 급증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시 임시초등교원양성소가 부활하고 보수교육제도가 운영되었다.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중등교사는 모두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모자라는 중등교원의 보충수단으로 1968년부터 중등교원양성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사립 사범대학들이 대량으로 설치·인가되었다.

1970년대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제도적인 차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교육대학의 정원을 증가시켜 놓은 탓에 수요의 감소로 인한 배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즉 1974년을 고비로 교육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대 졸업생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대 정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를 폐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등교사는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중등교사 양성정책이 많은 수의 사립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거의 모든 대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수강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만인에게 개방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교부는 개방된 교사교육의 질적 저하를 통감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도에 교직과정과 전공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자격취득 요건으로 하는 것과 교직과정 이수내용과 학점을 증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1983년도부터 시행하는 교직과정 이수자의 제한조치와 교직과정 운영지침과 교원자격검정 운영지침 등이 강구되었다.

즉 1982년 6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 중 당해학년의 학과별 졸업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졸업정원의 30% 이내”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그러나 교직과정 설치기준은 1964년 제정 당시에 “전임교원 2인 이상, 교직과정수강생 수 200인 이상인 경우 3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던 데 비해서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로 후퇴하였고, “교직과정 수강 학생수를 교실당 50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1979년 1월 전문개정 때 사라져버렸다.

현재 교원양성체제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원양성기관의 사회적 공신력 및 교원의 자질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모색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에 있다.

초기 사범대학은 교사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형태의 교육기관으로서 교과내용학과 교직과목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폐쇄적인 교육운영이었다. 당시에는 국비에 의한 교육, 복무의무 부과 등 사범학교의 운영방식을 수용하였다. 이는 1991년 교원임용고사 실시로 인해 자연스럽게 폐지되었고 사범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2.2 부설학교의 현황

### 2.2.1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45조 및 국립학교설치령’에 법적기반을 두고 있는데, 관련 조문에 의하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립학교’로서의 법적

지위, 의무적 부설학교로서의 법적 지위,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상설 연구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 2.2.2 부설학교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말 갑오개혁 이후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사범학교가 생겨날 때부터 실습을 목적으로 부설학교가 세워졌다.

서구에서도 체계적인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18세기를 전후한 근대에 태동되었기 때문에 부설학교의 역사 또한 그다지 길지 않다. 독일의 교원양성 부설학교들은 초기에는 교사세미나와 연습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실습학교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점차 교육실습과 연구의 장으로서의 부설학교 기능이 대두되었고, 20세기 이후에는 교육 이론 적용을 위한 실험학교와 교육실습과 연구를 위한 협력학교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왔다.

현재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2008년 기준으로 13개 시·도의 22개 대학에 40개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총 849학급이 있고, 26,67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공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급별로 0.5% 수준이다. 그러나 가장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연령대의 교사들의 비율이 높은, 우수 교원들이 모여 있으며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 2.2.3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장점

박재윤(2009)은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체적으로 ① 독자적 교원 연수프로그램 및 직능 개발 ② 교대 또는 사대 교수와의 연구 협력 체제 ③ 교대 또는 사대 교수와의 강의협력 ④ 업무성격과 근무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및 장학제도 ⑤ 사기가 높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 교원 집단 ⑥ 다양한 인간관계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⑦ 공립학교와는 차별화된 학생 집단 ⑧ 선도적 학교에 걸맞은 지역사회 학교 운영 ⑨ 최신 교육정보화 환경 등 시설 및 환경 등이다.

## 2.3.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문제점

### 2.3.1 사범대학 창설이 우리나라 중등교사교육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박수정(1999)은 ‘한국사범대학 제도의 창설에 관한 연구’에서 사범대학 창설이



우리나라 중등교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해방 후 창설된 사범대학제도는 중등교사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확립되어 오늘에까지 유지되고 있다.

둘째, 사범대학 제도는 우리나라 중등교사교육과정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즉 사범대학의 초창기에 형성된 교육과정은 사범대학의 이후 교육과정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사교육과정의 하나의 정형이 되었다.

셋째, 사범대학 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형성된 고유한 제도적 교사 교육적 성격과 특징은 이후에 제기된 사범대학에 긍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평가와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범대학 설립 초기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비에 의한 교육과 복무의무 부과 등으로 비교적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유인가가 있었고 그것은 국가의 교사 수급면에서 예측 가능한 기능을 제공했었다. 국공립대학의 의무 복무가 없어지고 사립대학도 동등한 자격으로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국공립 교사를 선발하게 되면서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않는 국공립대학 출신의 교사 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교사 수급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교사 자원의 과잉 배출이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사범대학은 정원 감축이라는 극약처방을 막기 어렵게 되었고 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범대학 창설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주로 교육과정에 대한 것으로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특수성과 전문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기르는데 부족하여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 2.3.2. 부설학교의 위상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

박재윤(2009)은 부설학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상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실험적 연구학교로서의 역할 - 상설 자율학교로의 법제화, 둘째, 연구학교로서의 기능, 셋째, 실습학교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그런데 실험적 연구학교로서의 역할은 대체로 각종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 공립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연구학교로서의 기능은 국립대학교부설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부 정책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습학교로서의 역할 또한 과거

에 비해 특별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교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설학교 교사의 경험에 의존해 실습생을 지도하기 때문이다.

### 2.3.3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연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

현재 각 대학의 부설학교가 원활하게 연계를 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 함께 하지만, 사범대학 교수들이 연구하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부설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부설학교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도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교사 양성을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설학교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협력의 필요성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 즉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사 교육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 3.1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협력

#### 3.1.1 예비교사 교육의 필요성

21세기 새로운 인재의 양성은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이라고 볼 때 이 네 가지 주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인은 교사라고 할 수 있다(정주희, 2001). 그러므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에 맞는 예비교사 교육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전문성, 자질 등 모든 요소들이 예비교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 3.1.2 임용시험 분석을 통해 본 예비교사 교육의 방향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제를 변경하기 위해 2007년 7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한 데 이어, 2007년 10월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고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7)에 따르면 변경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책은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와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고, 외국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변경 적용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주요 내용을 기존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백순근, 유예림, 2008).

표 1. 2009학년도부터 변경 적용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주요 내용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1차 시험	지필고사 -교육학(20점, 4지 선다형) -전공(80점, 서술·단답형) 대학재학생적(20점) 가산점(10점)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 교육학(5지선다형) - 전공(5지선다형) ※ 영어과 : 영어 듣기평가 대학재학생적(20~40점) 가산점(5~10점)
	130% 선발	200% 이상 선발*
제2차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평가(예체능 과목) ※ 교육청별로 총 50~60점	논술형 시험(100점) -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 ※ 외국어 과목 : 외국어로 실시
	100% 선발	150% 선발*
제3차 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100점)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원·인격 및 소양 평가** - 수업능력평가 : 수업실연 등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평가 ※ 외국어 과목 : 외국어로 실시 - 예체능·과학과 : 실기·실험평가
	-	100% 선발
합격자 사정	1~2차 점수 합산	1~3차 시험 점수 합산
특징	1차 시험 중심형 - 최종합격자 결정에 1차 시험의 영향력 과다(총점의 55% 정도)	2~3차 시험 중심형 - 최종합격자 결정에 1차 시험의 영향력 축소(총점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 1, 2차 시험의 합격자 비율과 배점 비율, 시험 통합실시 여부는 시험 실시 기관이 결정함

\*\*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함

위의 2009 중등교사 임용시험 개정안을 통해 본 예비교사 교육의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중심에서 학교현장중심으로 강조점이 전환되었다. 학교현장은 이론보다 역동적이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변경안에서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직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감 등 내적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사범대의 예비교사교육 방향이 이론중심에서 학교현장과 상호 보완적인 교육으로의 변화한 것이다. 현장교사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및 교육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3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교사 양성

#### 1) 교육실습의 개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가 편찬한 교육학 대백과사전은 교육실습을 크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교원양성기관의 학생이 병설학교나 협력학교에서 현장 교사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는 과정’

둘째,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이 통합되어 교육현장인 각급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과정’

셋째, ‘대학에서 그동안 학습한 기본이론과 일반원리를 교육현장에 실제로 응용·전개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의 실정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연구·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현장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실습에서 둘째와 셋째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교육학회(2001)는 교육실습을 ‘예비교사로서 교육실습생이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의 일부로서 부속 또는 협력학교에서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실지로 적용 또는 실천함으로써 교사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교직적성을 점검 또는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함은혜, 2007).

즉 교육실습은 사범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환경과 접하면서 실행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습의 과정을 통해 사범대학의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최고의 교육적 단계를 실습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실습의 필요성 : 이론과 실천의 통합

제반 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실무능력이다. 이러한 실무 능력은 단순히 관련 학문분야의 인지적 학습에서 익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련 학문분야의 충분한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익히는 '실습과정'이 필수적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교육은 그 대상자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에서의 학문적 접근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역동적으로 수용,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사는 학문적 지식 그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문적 지식 그 이상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충분한 경험이 필수적이다.

교육실습이 단순하게 사범대생의 통과 의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평소에 깊이 있는 학문 연구로서 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지식만으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잘 할 수는 없다. 똑같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수업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과 반응,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수업은 새로운 이론의 창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의미 있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양상을 하나하나 미리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육실습의 상황에서 노련한 교사에 의해 교정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교육실습이다. 즉,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이론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3) 교육실습의 교육적 가치

함은혜(2007)는 교육실습의 교육적 가치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증진시킨다. 즉 대학에서의 교육에 관련된 이론적 기술들을 교육실습 기간을 통해 그 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첫수업과 비교했을 때 마지막 수업에서 실천적 교수역량 수준이 증대되었다.

둘째,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은 예비교사의 인격적 성숙도를 증진시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격적 성숙은 단순히 가르치는 기술적 측면 이상으로 중요하다.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기간동안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다양한 학생들과 교육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인격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은 예비교사의 교직 준비도를 증진시킨다. 교사로서의 소명감, 교직에 대한 적극적 탐색 등 교직 준비도를 교육실습기간 동

안 증진시킬 수 있다.

#### 4) 교육실습의 문제점

앞에서 말한 교육실습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 교육실습에서 학교마다 또는 교사 개인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에서 공동으로 집필한 실습바이블이 없다.

각 학교마다 '교육실습지침서'를 출간하여 실습에 대한 안내를 돕고 이론적인 배경과 구체적인 실습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편인데, 문제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각 교과마다 명확하게 다르고 교수·학습의 방법까지 더 하면 실제 수업 상황은 큰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들을 대하면서 보이는 태도, 지도법, 발문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실제로 부설학교에서는 교사의 오랜 노하우로 이런 상황 상황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는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급하게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각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한 지침이 없다.

적어도 실습생을 내보내는 교수들은 부설학교의 교사들에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실습 기간에 부설학교의 교사에게 학생들을 위탁하여 교육하는 만큼 실습을 통해 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중도 저하를 우려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런데 이런 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과연 필요한가하고 교수들의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학습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이며, 이런 차이에 대해 사범대학 교수와 부설학교 교사와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셋째, 부설학교 교사의 노하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부설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훌륭히 가르치고 있다고 보이는 교사들을 선별하여 선발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나치게 교육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상당수가 채용되고 있으며(이는 남교사 기근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교사들이 훌륭하게 교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또한 부설학교 교사들의 노하우는 학문적으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연구하고 체계화할 여력이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자체만으로는 없는 형편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말고도 지속적인 연구 협력, 사범대학 교육과정 편성 협의, 교사 검증을 위한 노력 등의 측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3.2 교사교육을 위한 협력

### 3.2.1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박형래(2009)는 교사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는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최대의 교육목표로 삼으로 엄격하고 계속된 연구와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여 미성숙한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문적이라는 인식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적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종철(1989)은 전문직을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다. 첫째 그 직업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다. 둘째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이 아니고 심오한 학문적 이론과 그 적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셋째, 이기적 활동보다는 이타적 동기를 중요시 한다. 넷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도의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다섯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율적인 조직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교사도 교총, 전교조, 한교조 같은 교직원체를 조직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사자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 단지 지식, 기술의 전달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관에 입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전통적 교육관과는 달리 교사와 학생의 주체적인 인격적 만남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이다. 여기서는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 감정이입력, 인간적 만남, 인간애, 교육애, 진리에 대한 열정과 몰입, 도덕성과 저의성등이 중시된다.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범주는 교육에 대한 철학적 입장, 교육관, 인간관에 따라 달라진다.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틀은 기술적 전문성과 비기술적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지식지향적인식, 후자를 비지식지향적 인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곽영우, 1998; 정주희, 2001). 지식지향적 접근은 가르치는 지식, 교과내용으로서 학문적 내용을 강조하며, 비지식적 접근은 교사 효율성과 관련된 수업계획 능력, 교수조직 및 제시 능력, 학생지도능력, 의사소통 능력, 과 같은 교원업무 영역의 행동 범주를 강조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은 이미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2.2 교사 자질 향상의 필요성

#### 1) 교사자질의 일반적 논의

김종철(1986)은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교육철학의 확립, 교직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감정, 문제해결의 능력과 기술의 습득, 특히 학습지도 방법과 생활지도 방법의 개선, 교육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 등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콕즈(1974)는 한 개인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의 개인적인 지각체제에 달려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정주희 2001에서 재인용). 담당하는 과목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각,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 학습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개인적 지각 등이다.

이러한 교사의 자질은 시대를 초월하여 요구되는 것이고, 변화하는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새 시대의 교원이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은 스스로 지구나 인류의 존재양식을 생각하고, 교육활동에서 폭넓은 시야를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는 사회인에게 필요한 능력, 교직에 직접 관련되는 다양한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보매체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인간대면적 교육을 통한 심성수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소외 현상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매체를 교육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면하고 소통하는 자질 또한 필요하다.

#### 2) OECD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사 자질

OECD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질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자기가 가르칠 교과목에 관한 지식과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학습의 운영을 집단 간의 다양한 접촉이 가능한 방향으로 활력 있게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수모형이나 교육철학에 관하여 이론과 실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직과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주희, 2001에서 재인용).

우리의 교사 양성 제도 속에서 이러한 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계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3) 미래에 대응하는 교사 자질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화 또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가치의 다양화 현상이 주요한 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이제 교원은 누구나 교육활동 및 교육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정보검색을 통하여 학생지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검색 기능 외에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도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활용된 교육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능력도 요구되며, 학생의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교육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소와의 통합적 연계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지역사회 활용능력과 더 나아가 학부모와의 연계 및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적 수업에서 필요한 자질이 아니라 학교전체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선상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자신이 담당한 교과와 수업지도뿐만 아니라 학교전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며, 전체 학교 운영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조망함과 동시에 학교 운영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능력의 신장을 위한 계속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방향이 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결정짓고 고등학교 입시 방향이 중학교 교육내용을 결정짓는다. 가령 수학능력시험에 들어가는 교과인가 아닌가가 교과와 비중을 결정짓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가 사교육시장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부모의 표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계산까지도 중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수학능력시험이 어려워지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그것이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해마다 수능시험을 거국적인 행사로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구관하는 기관의 장의 거취문제도 야기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의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크게 손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교수-교사로 이루어진 연구 집단에서 꾸준한 연구를 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늘 뒤쳐진 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 4) 외국(미국, 영국)의 교사 평가 및 기준

미국에서는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NBPTS(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와

INTASC(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이다.

NBPTS는 3년 이상의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높은 전문적 기준을 세워놓고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는 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해 주의 자격증과는 다른 차원의 국가 수준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즉 NBPTS는 경력교사에 대한 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TASC는 초임교사를 위한 질관리를 수행한다. INTASC는 초임교사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초임교사들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주희, 2001에서 재인용).

표 2. NBPTS의 교사에 대한 일반기준

기준	내용
1. 교사는 학생과 그들의 학습에 헌신한다.	1) 교사는 학생 개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교수방법을 적용한다. 2)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과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교사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다룬다. 4) 교사의 임무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2.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안다.	1)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의 지식이 형성되고 조직되는 방법 및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방법을 안다. 2)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안다. 3) 교사는 지식을 습득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3.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1) 교사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2) 교사는 집단환경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교사는 학생의 참여에 우선권을 둔다 4) 교사는 학생의 진보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5) 교사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관심을 둔다.
4. 교사는 실천적 사고를 하고 경험적으로부터 배운다.	1) 교사는 끊임없이 어려운 판단을 요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교사는 자신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교육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적용하며 스스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5. 교사는 학회의 구성원이다.	1) 교사는 다른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학교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2) 교사는 부모와 협동적으로 일한다. 3) 교사는 지역사회 자원의 이점을 취한다.

표 3. INTASC의 기준

기준	
1. 과목내용	교사는 자신의 과목에서 중심개념, 연구도구,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만드는 학습경험을 창조한다.
2. 학생학습	교사는 학생의 학습발달을 이해하고 학생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을 돕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3. 학습자이해	교사는 학생의 학습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한다.
4. 교수전략	교사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수행기술의 발달을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전략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5. 교육환경	교사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스스로의 동기를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창조한다.
6. 의사소통	교사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교실에서 적극적인 조사, 협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7. 교육계획	교사는 과목, 아동, 지역사회,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학습활동을 계획한다.
8. 평가	교사는 학습자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이러한 발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형식적, 비형식적 평가 전략을 사용한다.
9. 반성과 전문적 성장	교사는 아동, 학부모, 교사간에 전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반성적인 실천가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한다.
10. 협동관계 형성	교사는 아동의 학습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동료, 부모, 지역사회기관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영국에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제시된 교사자격(QTS: Qualified Teacher Status)을 위한 국가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교원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는 제시된 국가기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충족되도록 명시하였다(정주희, 2001).

표 4. QTS 교사자격 기준

기준	
1. 지식과 이해	1) 전공과목과 관련된 국가교육과정의 제반요소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전공과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 3) 학생들이 교과목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질문들에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 4)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수업목표, 내용, 지도방법, 수업평가 등을 확실히 알고 있는 능력
2. 수업계획	1) 전공과목에 대한 교수목표, 내용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향후 수업계획 및 수업순서를 정하는데 있어 학생의 성취도를 반영한다.
3. 교수방법	1)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다. 2) 학생의 능력에 따른 수업실시로 학습효과를 높인다.
4. 학급경영	1) 학생들의 요구와 그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한다. 2) 적절한 칭찬과 보상을 해줌으로써 학생의 사기를 높인다.
5. 학생평가	1) 학생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 질문, 과제, 학습태도 등을 기록하고 활용한다. 2) 국가 수준의 평가방법, 각종 표준화 검사 및 수행평가 등 다양한 종류의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6. 교사 사명감	1) 교사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2) 학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제반 정책과 지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3) 교사는 학생을 위해 기본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 교사의 가장 우선된 임무를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에 둔다.
7. 협동관계	1)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수업계획 업무는 동료교사와 함께 한다. 2)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 5)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연계의 필요성

교사라고 하는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요구되는 인간성, 학교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변화를 수용하고 자기반성을 통한 성장 노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상호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분리되어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밀접성을 이유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교사의 자질 교육을 우리나라 사범대학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교사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숙달, 수업 계획 및 조직, 학급 경영, 평가의 질 관리, 동료 교사와의 협동 관계,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 등 사범대학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도 방대하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사범대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이점에서 교사 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교사의 수준은 교육의 수준이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면 사범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설학교를 위주로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 형태가 아니라 세미나나 워크숍 등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주로 진행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물론 사범대학에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적어도 부설학교 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4.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협력의 방향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문제점을 통해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협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부설학교는 사범대학이 생겨나면서 존재해왔다. 교사를 길러내고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부설학교는 그 역할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와의 관계는 ‘훌륭한 교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박재운(2009)은 국립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립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동강의, 연수 등 국립대학의 교수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에 부설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대학교수와 초·중등 현장교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과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립대학 교수와 부설학교 교원 간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간의 긴밀한 협력의 방향을 ‘훌륭한 교사를 길러내고 양성한다.’는 사범대학의 존재 이유에 근거를 두어 크게 두 가지, 즉 첫째 예비교사양성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 방안과, 둘째 현직교사 재교육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4.1 예비교사 양성 방안

### 4.1.1 예비교사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 구축

교사를 길러내고 준비시키는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 교직과목, 교육실습 등이 그것이다. 크게 이 4가지 영역을 4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예비교사를 길러내고 준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를 준비시키고 길러내는 사범대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김병찬, 2008).

첫째, 사범대학에서의 교과 내용학 과정은 이론중심 성향이 매우 강하고, 그 내용도 학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직과목 역시 이론 중심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교직과목을 통해 실제보다는 이론을 주로 다루었으며 그 이론도 교사로 준비되는데 필요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순수 교육학’ 이론이며, ‘교직 수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이다. 교과교육 역시 이론중심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 나온 교사들은 사범대학의 실천부분의 약화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 부분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범대학이 종합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규정과 기준은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수행해야 하지만, 현장의 요구는 사범대학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나 사범대학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은 이론 중심적 성향을 떨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4개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영역의 연계성 부족이다. 연계성부족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이다. 사범대학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배우고, 학교현장에 나가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르칠 것을 새롭게 배우고 구성해서 가르친다.

셋째, 사범대학 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사로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교사들은 사범대학을 통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에 들어오며, 많은 부분을 교직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사전문성 지체의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



이다. 특히 교사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임용고시를 통한 교사채용 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교 교사 및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범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문항이 가장 부정적인 형태로 기술되고 있다. 이는 사범대학 교육 프로그램이 교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행하는 데 매우 미흡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론 중심을 탈피하여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으로 교사 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직 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 4.1.2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부설학교의 교육실습 프로그램 구축

##### 1) 현행 교육실습 개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학교 3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실습의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육실습의 목표

- ① 교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는다.
- ②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 ③ 교수·학습 내용 구성의 지도 및 그 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경험하고, 경험을 통하여 이에 대한 지도 기술을 함양한다.
- ④ 각종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및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 ⑤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터득한다.
- ⑥ 학급 경영에 참여하고 학생을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 ⑦ 교무 일반에 관한 사무 처리 요령을 습득한다.
- ⑧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적응을 돕고 이해를 높인다.
- ⑨ 교직자로서 자기 평가의 기회를 가진다.

##### 나) 교육 실습의 영역

##### ① 참관실습

- 관찰 : 수업 실습과 실무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교육의 개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교직원, 학교 교육 계획, 교육 과정, 교수·학습 지도, 생활 지도, 클럽 활동, 학급 경영, 학교 사무 등에 걸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 참가 : 실제 지도의 바로 전 단계로서 학교 교육 활동에 직접 참가하여 학교 교육을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는 교육 실습생이 지도 주체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며,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도 교사의 업무의 일부를 맡거나,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 실습의 내용은 교과 경영 및 학습 지도, 학급 경영 및 학생 생활 지도, 계발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수업실습

- 관찰 실습과 참가 실습을 거쳐 교생이 단위 시간의 수업을 단독으로 실시하여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수 경험을 쌓는 실습 활동이다. 실제 수업은 참관 실습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교양 과목, 전공과목, 교직 과목의 지식과 이론, 초·중·고·대학을 거치는 동안 자기가 존경하는 교사나 교수의 교수 방법이 하나로 융합되어 교육 실습생의 단독 수업인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 실습은 크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특별활동, 학급경영, 교과 연구회 및 평가회,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 특히, 학습지도가 중심이 되는데, 학습지도에는 실제 수업 과정뿐만 아니라, 지도안 작성, 지도교사와의 연구지도 시간, 수업 관련 연구회의 및 평가회의 참석 등도 중요한 수업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

③ 실무실습

- 교직에 복무하는 동안 교사로서 추진하여야 할 교직 사무, 학급 사무, 학교 사무 등 참관 실습과 실제 실습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의 경험을 쌓는 활동을 말한다.

④ 반성 및 평가 영역

- 반성 및 평가란 교육 실습 전 과정에서 실습생 자신과 동료 교생의 사고 및 행동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앞선 참관, 수업, 실무 실습 중 수업 실습단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습의 한 영역이다. 수업 평가회, 대표 수업 평가회, 총평회 등에 참여하여 수업 전개 및 성과를 반성·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 실습록의 소감란에 자기반성의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도 이에 속한다.

다) 교육실습 기간 : 4년 간 1회, 총 4주

라) 교육실습 시 개인당 평균 수업 시수 : 약 9시간

마) 주별 교육실습 과정

표 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주별 교육실습 과정

주	실 습 과 정
제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 실무 연수</li> <li>○ 대표 교생 및 당번 학과 선정 : 교생실 관리 시작</li> <li>○ 교과 협의회 및 수업 시간표 작성</li> <li>○ 학급 종례 참관, 학급 학생 대면식</li> <li>○ 학급 경영 협의회</li> <li>○ 학급 조·종례 참관</li> <li>○ 교과 수업 참관 (하루 3시간 이상)</li> <li>○ 교생 지도 수업 참관 및 평가회 참석</li> <li>○ 각 교과별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 (수업 1일 전)</li> </ul>
제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담임 근무 및 조·종례 참관</li> <li>○ 각 교과별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 및 실제 수업</li> <li>○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이용한 교수-학습 자료 작성 지도</li> <li>○ 종합체육대회 예행연습 참관</li> <li>○ 종합체육대회 참관</li> <li>○ 교생 대표 수업자 결정</li> </ul>
제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담임 근무 및 조·종례 참관</li> <li>○ 동아리활동 참관 희망 부서 조사</li> <li>○ 동아리활동 참관 - 동아리활동 참관록 작성·제출</li> <li>○ 각 교과별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 및 실제 수업</li> </ul>
제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생 대표 수업 및 평가회</li> <li>○ 과제물(학습지도안, 수업자료 CD 등) 제출</li> <li>○ 교생실 정리 정돈, 교과서 및 비품 반납</li> <li>○ 학급 고별식</li> <li>○ 교생 총평회</li> </ul>

2) 공립학교의 교육실습 현황

비교를 위해 일반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범대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실습을 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 그래서 부설학교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사범대학들 중 일부 대

학은 이런 저런 이유로 부설학교가 아닌 대용학교나 협력학교로 보내고 있다.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범대 4학년의 교육실습생들이 그런 공립학교에서의 실습 여건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학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립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생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교육실습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개 중학교 교육실습 지침서를 분석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현상을 보이며, 실습을 위해 지도하는 교사의 개인적인 태도나 능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몇몇 교사에게 집중하여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실의 방증이다.

즉 사범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실습의 목표와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실습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범대학과 공립학교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입시여건과 맞물려 있어 사범대학과 공립학교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통된 교육실습의 목표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입안자, 사범대학, 공립학교 교사 및 관리자 모두가 협력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다.

학교현장의 일차적인 관심은 예비교사의 실습보다는 현장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주미경, 양성관, 2007)이라는 사실을 사범대학에서는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실습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실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 3)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실습생 설문조사 분석

이옥선(2011)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 보고서에서 2011학년도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다양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설학교 교육실습프로그램 관련 설문

표 6. 부설학교 교육실습프로그램 관련 설문 결과

설문 문항	설문 결과				
	교과 및 학습지도	학급관리 생활지도	학생인성 지도	투철한 교직원	행정업무
교육실습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51.0%	23.0%	12.8%	9.0%	1.2%
교육실습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일	연구 및 과제	수업기법 부족	학생지도	교과지식 부족	교사들과의 부적응
	36.1%	34.0%	15.5%	5.1%	3.3%
실습 지도교사의 수업 참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44.5%	42.0%	10.8%	1.5%	1.2%
교육실습 중 동료 교생의 수업 참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49.2%	39.6%	8.3%	1.4%	1.5%
수업 참관 후 실시되는 교과 협의회 시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46.8%	40.2%	9.5%	1.7%	1.8%
교육실습 중 실시되는 수업 실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1.5%	40.8%	5.3%	0.8%	1.6%
생활지도 업무와 관련한 실습 내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2.0%	41.1%	31.5%	3.8%	1.6%
학급 관리 업무와 관련한 실습내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2.9%	46.2%	25.6%	4.1%	1.2%
부설학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내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1.0%	49.5%	25.2%	3.3%	1.0%
부설학교의 실습 지도 방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2.9%	46.9%	23.8%	4.1%	2.3%
부설학교의 교육실습생에 대한 지도와 관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34.0%	50.4%	10.0%	3.4%	2.2%

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에 대한 설문

표 7. 사범대학 교육과정 관련 설문 결과

설문 문항	설문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지 않다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교육실습에 도움준 정도	6.2%	33.9%	40.4%	15.4%	4.1%
	수업 시연 강화	현장탐방 견학	교육이론 강좌		
교육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더 필요한 것	53.3%	36.8%	4.0%		
	부설학교와의 협력 미흡	교육실습 전문 인력 부족	실습생에 대한 지원 미흡	실습학교의 준비부족	
교육실습이 실습생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	41.3%	30.8%	19.6%	2.9%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교육실습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	4.3%	19.1%	49.6%	19.1%	8.5%
	교육실습 연계수업	필요없음	후배들과 소통기회	인터넷커뮤니티	교육실습 평가회
대학차원에서 실습 후에 필요한 사후 조치	40.5%	21.1%	20.0%	13.0%	5.4%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위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교육실습생들의 대부분은 부설학교 교육실습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습이 교직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증가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이론중심의 수업이 실제 교육실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보통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교육실습이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실습 후 사후 조치로 교육실습 후 연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부설학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학과 부

설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4.1.3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

본교 교사 30명에 대한 설문 결과와 전문가집단 토의를 통해 도출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간의 공동 협력체 구축

###### 가) 교육과정 부분

사범대학의 부정적 평가의 핵심은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분야로서의 대학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예비교사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갑성(2009)은 사범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① 실제적인 수업기술
- ② 단위학교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
- ③ 수업 외 교사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 작성, 교과 외 활동지도
- ④ 인성교육 프로그램
- 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사범대생들의 현실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교사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다. 즉 교사로서의 주요역할인 담임, 교과교사, 학교업무, 학생상담 등의 분야가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서 생생한 학교현실을 담을 수 현직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교과와 관련된 것이다.

교사로서 자신의 전공교과를 철저히 익힌다는 것은 교사의 기본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교과를 깊이 탐색한다는 것은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결과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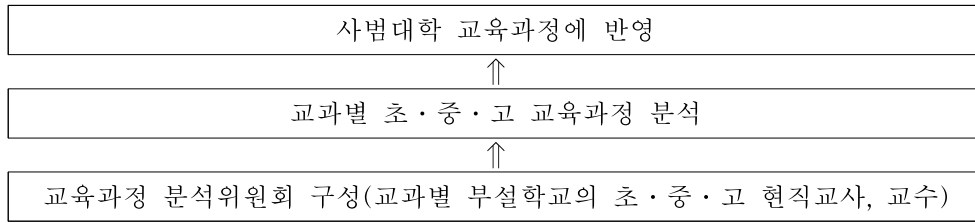


그림 1. 사범대학 교육과정 반영 흐름도 1

둘째, 담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향과 교사에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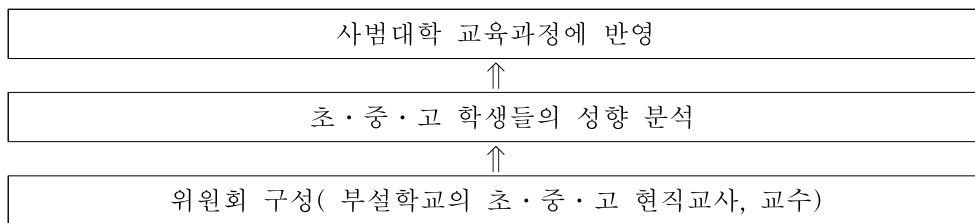


그림 2. 사범대학 교육과정 반영 흐름도 2

현직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은 사범대 2학년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학년 단계에서 요즘의 학교 현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예비교사들에게 교사가 되어 만나게 되는 학생들, 학교현장을 미리 준비시키도록 한다. 3학년 단계에서 담임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4학년 단계에서 교과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준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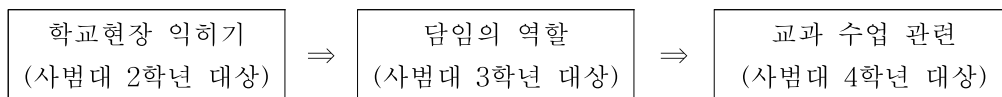


그림 3. 사범대학 교육과정 편성 예시

#### 나) 교과서 개발

교과서는 교육학 및 교과별 이론과 철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아내는 것이다. 원리와 원칙이 담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와 교사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즉 이론과 철학분야는



교수가, 그것을 교육현실에서 담아내는 방법적 부분에서는 부설학교 교사들이 담당하여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다.

이미 교과별로 상당수의 교과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수 개인의 연구업무로서가 아니라 사범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한다.

다)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이론적 분야에서는 이미 교육학 분야에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실제 교실수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부설학교의 교사와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협동학습, 토론, 역할극, 컴퓨터 및 동영상 활용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실에서 적용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제반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수업내용, 학생수준, 교사 개인의 성향 등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라) 강의법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학교수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모든 수업의 기초가 되는 교수·학습 방법은 바로 강의법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한 강의법의 공동개발이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자발적인 성인집단, 자아탐색과 자율성이 확립된 대학생들과는 다르다. 수동적으로 많은 시간을 듣는 수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전달법은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 부설학교 교사의 대학 파견 프로그램(공동연구, 겸임 교수제, 현장관련 수업 참여 등)

부설학교의 교사를 사범대학에 파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 중학교 교사의 경우 이미 몇몇 과별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사범대학 모든 과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범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표 8. 2011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의 교사 대학파견 현황

교과(성명)	대상	내용	시기	기타
국어과 (김계산, 김근수)	임용고시 1차 합격생	수업시연 및 수업 방법지도	임용고시 2차 시험 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어과 (김근수)	국어교육과 2학년	예비국어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2011 2학기-4회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을 부과함
과학과 (한덕주)	사범대학 과학교육전공	예비과학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2010 1학기-1회 2010 2학기-1회 2011 1학기-1회 2011 2학기-2회	교육과정에 포함됨
수학과 (오지은)	수학교육과 2학년	예비수학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2학기 수업 2회	교육과정에 포함됨

## 2) 공립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훌륭한 교사의 양성은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훌륭한 교사양성은 체계적인 교육실습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체계적인 교육실습을 위해서는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의 기회제공이 필수적이다. 공립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부설학교의 교육실습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부설학교의 교육실습 담당교사를 활용하여 대학 내의 체계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 공립학교에 보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범대학은 공립학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공립학교의 현실적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 현재 부설학교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이러한 한국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또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배경을 부설학교 현장교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3) 사범대학생과 부설학교 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교사에게 있어 가르치는 대상을 충분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르치는 대상 즉 학생의 요구, 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교육실습의 4주간에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도 지도교사와 함께한 교실환경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학생들을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교사가 되어 만나게 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면 오히려 해가 되듯이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교육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설학교 학생들과 사범대생들의 교류이다. 현재 멘토, 방과후 부진아지도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진로체험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설학교 학생들과 사범대생의 교류는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 중학교 같은 경우 국어과 학생들이 ‘한결제’ 축제에, 체육과 학생들이 ‘교내체육대회 및 에어로빅대회’에, 여러 교과와 학생들이 다양한 ‘학년말 프로그램의 운영’등 교과 이외의 프로그램에 투입되면 좋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범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는 사범대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대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보다 나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 및 자아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4)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활용

교육실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즉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들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범대학생들에게 실제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교사를 준비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2009년 개정된 임용고사안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기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원양성의 현실은 사범대생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설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교육실습생은 많을 때는 160명도 된 적이 있고 지금도 한 회당 100명이 넘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르침을 통한 충분한 배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활용이다. 즉 부설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활동에 사범대생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 중학교의 경우 1년에 5기에 걸쳐 교과 및 특기적성 분야에서 다양하게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사범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인 평가의 영역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 기간의 방과후 활동이 끝나면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봄으로써 평가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 5) 교과 및 담임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개발

교과별로 부설학교 교사와 사범대생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공개 및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수업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멘토교사의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대신할 수도 있다.

교사에게 담임의 역할도 만끽이나 중요하다. 담임교사의 역할, 마인드 등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6)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강화

현재 부설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수업참관, 실제수업, 평가회, 담임업무이다. 이 4가지 영역은 평가회 협의회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습록을 통해 매번 자신의 실습생으로서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실습프로그램에 다음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자신의 수업 동영상 촬영 및 분석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가 객관화 해보는 것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실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비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가르칠 때 목소리 톤이나 속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가르치는 기법적인 측면의 많은 부분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객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수업 및 담임역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첫 수업 및 첫 담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스스로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 및 담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4주간의 발전된 변화를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습의 한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나)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 설계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다. 학생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이다. 4주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교육실습생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실

시한다. 이때 교육실습생 개인에 대한 친밀도의 평가로 끝나지 않게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한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스스로 분석해봄으로써 학생의 요구와 눈높이 맞는 수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스스로 탐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 7) 교육실습이후 연계 프로그램 개발

4주간의 실습으로 교육실습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교육실습경험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기 위해 그 이후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는 사범대, 부설학교 교사, 교육실습생이 한자리에 모여 4주간의 교육실습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과별 교사-교육실습생간 그룹활동 등 교사, 교육실습생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습이후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습이후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교직을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실습생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렴하여 실습생과 현직교사 간, 교수와 현직교사 간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교과연구, 교수 학습 모형 개발, 교수법 강의, 담임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 8)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활용

교육봉사활동은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봉사활동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이다(김병찬, 2010).

교육봉사활동의 이러한 특성은 교사의 기술적인 측면과 내적인 교사의 자질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봉사활동은 2006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2009년부터 교사양성기관 입학생들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9:64~66)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교육실습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이다.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산출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봉사활동이 예비교사들에게 준 영향을 연구한 자료(김병찬, 201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교육현실(학생의 실상, 교사의 실상, 학교의 실상) 이해하기, 교육활동의 시행착오 경험하기, 교육 성취 맛보기, 교직자아 성찰하기이다.

즉 예비교사들은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교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기본요소들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범대와 부설학교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습의 영역에서는 실제 학교 수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수업형태로, 그리고 학생상담의 영역을 통해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4.2 현직교사 재교육 방안

### 4.2.1 교사연수의 필요성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교사이다. 그러기에 교사는 변화하는 세계, 그 속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꾸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사가 서야 할 방향을 제공해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사연수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웹이 교과서를, 컴퓨터나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역설적인 발상으로 그래서 학교나 교사는 웹상의 가상현실에서 도저히 충족되지 못하는 쪽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관심분야의 지식과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탐구해 나갈지,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지 등에 대한 컨설턴트이자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미래연구소에서는 10년 후의 교사를 소셜 디자이너로 보고 있다. 지식이란 콘텐츠는 조만간 값싸고 어디에서나 유용하게 되므로 교사는 학습공동체에서의 작곡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내다보고 있다(김윤정, 2011).

교사를 준비하고 길러주는 일을 사범대학에서 해야 한다. 변화하는 미래상황에 교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현직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부설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 4.2.2 교사연수의 방향

##### 1) 대상에 따른 연수

###### 가) 2급 정교사 대상

이 시기에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학교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 학교 외적 주변 환경에 대한 파악능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수 기법, 상담기법 등이 필요하다. 교직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의 방향은 교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해결방법들을 제공해주는 내용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 나) 1급 정교사 대상

OECD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의 자질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OECD에서 언급하는 교사의 자질은 다음과 같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첫째, 자기가 가르칠 교과목에 관한 지식과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학급의 운영을 집단 간의 다양한 접촉이 가능한 방향으로 활력 있게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수모형이나 교육철학에 관하여 이론과 실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직과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등이다.

교사는 변화가 없으면 고여 있는 물처럼 오히려 교육적 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꾸준한 변화와 자기성찰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선진국들의 최신 교육의 방향등을 늘 연구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학교 기관장 대상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평교사의 연수보다 학교 기관장의 연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기관장을 연수 강사로 활용하는 등 학교기관장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부설학교와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 연수에는 직무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다. 연수 시간이 승진에 연결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질을 승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사들이 쉽게 점수를 따거나 노력을 덜 해도 되거나 전공과 무관해도 재미있는 것으로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화 또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가치의 다양화 현상이 주요한 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이제 교원은 누구나 교육활동 및 교육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정보검색을 통하여 학생지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도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활용된 교육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능력도 요구되며, 학생의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교사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4.3 기타

지금까지 예비교사 교육 및 교사연수를 위해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가 협력해 나가야 할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실습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실습 기간이 짧다. 미국의 경우 교육실습 기간을 6주~8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사대의 경우 교육실습기간은 4주이다. 2009 임용고사 개정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실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실습을 통한 수업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교육실습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에서 대안을 찾아본다면 부설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교육실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설학교의 학급수를 늘린다면 지금의 4주의 교육실습 기간에 교육실습생들이 보다 많은 수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은 현재 교육과학부 관할이



다. 교사수급과도 관련되는 일이라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것을 해결할 사범대학 측의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부설학교의 시설확충 문제이다.

교육실습생들의 4주간의 생활을 위해 학교현장의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실습생들에게 4주간의 교육실습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실습생들의 수업준비를 위한 컴퓨터매체의 자유로운 사용가능,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등이다.

우수한 인재들을 훌륭한 교원으로 양성하는 것은 교육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범대학생들이 교직 이외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신입 교사 경쟁률이 매우 높고 그 노력을 다른 고시준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에서 교직이외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교육실습 기간 동안 외적인 요소로 인해 교사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실습 기간 동안 사범대와 부설학교의 역할분담의 명확성이다.

교육실습 기간 동안 부설학교는 교육실습생의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실습생들의 타 강좌 수강 및 시험, 각종 대회 출전 등으로 결석 혹은 조퇴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실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부수적인 여건의 해결은 사범대학에서 담당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사회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인류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해 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범위가 좁았다. 그리하여 교육적 함의도 비교적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공동체의 범위가 이미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 간의 경쟁을 도모하면서도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OECD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어떠한 교사를 양성하고 길러내야 할 것인가?’이다. 즉 어떠한 예비교사를 길러내고,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예비교사 양성과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뿌리를 내려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예비교사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 ①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간의 협력체제 구축
- ② 공립학교 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③ 사범대학생과 부설학교 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 ④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활용
- ⑤ 교과 및 담임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
- ⑥ 교육실습프로그램의 강화
- ⑦ 교육실습 이후 연계 프로그램 개발
- ⑧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활용 등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현직교사 재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 ① 2급 정교사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 ②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③ 학교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④ 변화하는 세계흐름에 따른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살펴보았다.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협력방안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연결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세계적 차원의 경쟁과 공존’이라는 이시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과 공존의 두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길러낸 바람직한 인간상이 사회 다양한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 간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교육도 한 사회가 유지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즉 그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유기적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교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들에게 수업이외의 다양한 학교현장이 제공되어

야 한다.

수업하고, 평가하고, 성적에 의해 학생들이 서열화하는 요즈음의 학교현실을 실습기간에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사를 길러내기 힘들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사범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4) 본 논문은 2012. 4. 30. 투고되었고, 2012. 5. 25.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2. 7. 13.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곽영우 (1998). 「교육개혁과 사범대학의 발전과제」. 한국교사교육, 15(1).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사 신규임용 시험제도 개선 발표' 보도자료. 2007년 9월 28일자.
- 김갑성 (2009).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찬 (2008). 「사범대학 교육 경험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5.
- 김병찬 (2010).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육, 37(1).
- 김윤정 (201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확산, 추진 방안」. 교육개발2011.
- 김채문 (2005).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 체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박상완 (2000). 「사범대학 교사교육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 박수정 (1999). 「한국사범대학 제도의 창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박재운 (2009).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개선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형래 (2009).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신규임용제도 개선방안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순근, 유예림 (2008).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교육평가연구, 21(3).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교육학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 이옥선 (2011). 「교육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개발」.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
- 정주희 (2001). 「교사자질에 대한 사범대학 출신학교 교사와 일반대학 출신 교사의 인식비교」. 이화여자대학교.
- 주미경, 양성관 (2007). 「사범대학-현장학교 협력관계에 기반한 교육실습 사례분석: 중등교원을 위한 교육 실습 확대 방안 가능성 탐색」. 한국교원교육학회, 24(2).
-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함은혜 (2007). 「교육실습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연구」. 서울대학교.

<Abstract>

The Cooperatio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the Affiliated  
School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ty of Teach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ways that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its affiliated schools can take in action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he reason why we have college of education is to grow and develop professional teachers. To meet the need of the college of education, the cooperation with the affiliated schools is inevitable.

There are mainly two ways to connect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its affiliated schools; which are developing would-be teachers and re-training the teachers in service.

To train would-be teacher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ng system between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its affiliated schools, the supporting systems for teacher training programs at the public schools, the development of connecting programs of the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those in the affiliated schools, the use of after-school programs, the development of the monitor-mentee program between the homeroom teacher and the teacher trainees, the reinforcement of teacher trainee program, the development of related program after the student teaching program, and the use of voluntary program in education are studied in this article.

To re-educate the teachers in service, the training program for 2nd licensed teachers and 1st licensed teachers, the training programs for president of the schools, and the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along the global changes are considered in this article.

To make all this things effective, systematic guidelines from the law, the e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education party and other organizations, the presentation of diverse activities at schools other than the classes.

**【Keywords】** the college of education, the affiliated schools, a would-be teacher, a teacher training program,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